

메시지 1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성경: 빌 4:5-9, 11하-13

- (빌 4:5-9)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⁶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⁷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⁸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⁹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 (빌 4:11하-13)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 — 빌 1:19-21상, 2:5-13, 3:8-10.

(빌 4:5-9)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⁶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⁷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⁸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⁹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빌 1:19-21상)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 2:5-13)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¹²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¹³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3:8-10)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⁹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¹⁰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 A. 바울은 관용과 염려하지 않음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방면이라고 생각했다.
 B.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 마 6:22-34.

(마 6:22-34)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²³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²⁴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²⁵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²⁶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²⁷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일 규빗이나 더할 수 있습니까? ²⁸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²⁹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³⁰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³¹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³²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³³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³⁴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II.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빌 4:5.

- A.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관용은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 빌 1:19-21상.

(빌 1:19-21상)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1.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관용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자비와 사려 깊음과 복종과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미덕을 갖는다면, 우리는 또한 의와 거룩함을 갖게 될 것이다.
 - b. 관용은 또한 자제와 온건함과 온화함과 이해심과 동정심과 지혜와 긍휼과 평온함과 주님을 양망함을 포함하며,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적이심을 인정하는 미덕도 포함한다 — 비교 고후 12:7-9.

(고후 12:7-9)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⁸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⁹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악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2.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 비교 고후 6:1상, 10:1, 빌 1:19, 사 11:2.

(고후 6:1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고후 10:1)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 11:2) 그분 위에 여호와와 영께서 머무시니 / 곧 지혜와 명철의 영 / 조언과 능력의 영 /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 a. 우리가 관용을 베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 사 50:4-5, 골 1:28, 잠 25:15.

(사 50:4-5)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⁵주 여호와와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 돌아서지도 않았다.

(골 1: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잠 25:15) 관용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니 /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 b.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대하 1:10.

(대하 1:10)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 B.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관용이었다 — 빌 1:21상.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1.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2.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다 — 눅 24:15-19, 28-31, 마 17:24-27, 요 11:20-34.

(눅 24:15-19)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¹⁶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⁷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라고 하시자,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¹⁸그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¹⁹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일이나 말에 능력 있으신 신언자이셨습니다.

(눅 24:28-31)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다. ²⁹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저녁때가 다 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읍시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 ³⁰예수님께서 그들과 함

계 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³¹그들은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마 17:24-27)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그대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²⁵베드로가 “네입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인두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서입니까, 남들에게서입니까?” ²⁶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됩니다. ²⁷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대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화 한 닢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요 11:20-34)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²¹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²²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²³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²⁴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²⁵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²⁶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²⁷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²⁸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²⁹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³⁰그때에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³¹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올려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³²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³³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³⁴“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라고 하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3.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미덕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4. 관용에 대해 말하고 난 후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한다(빌 4:5).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비교 롬 10:8-13).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킨다(마 1:23, 출 33:14).

(빌 4: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롬 10:8-13)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⁹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¹⁰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¹¹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¹²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¹³“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 1: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출 33: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C.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변화되는 비결,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

사적으로 바뀌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빌 4:12). 실지적이고 간단한 이 비결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 4: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Ⅲ.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화나 팩스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여쭙 수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빌 4:6)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와 위로자와 지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나는 항상 ‘오, 주님, 이제 저는 산책을 갑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주님을 마시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는 근심이 전혀 없다.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오, 주님, 이 근심은 당신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근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이 근심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요소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을 통하여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 사실상, 여러분은 다만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권,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4장, 70-71쪽)

A.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시다 — 빌 4:7, 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빌 4: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 9: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 한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 통치가 /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 그분의 이름은 / 놀라우신 조연자 / 전능하신 하나님 / 영원하신 아버지 /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요 14:27)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눅 7:50)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롬 3:17)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15:13)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롬 16: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B. ‘모든 일에서’라는 말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가리킨다.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모두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 빌 4:6.

(빌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 C.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의 교통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 빌 4:6.

(빌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 D.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빌 4:9)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요 16: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 E.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사 30:15상).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사 30:15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롬 8:28-3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²⁹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³⁰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마 10:29-31)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³⁰아버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를 다 세어 놓으셨습니다. ³¹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고후 4:15-18)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⁶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⁷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¹⁸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

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IV.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빌 4:8.

A.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이 속에서부터 살아 낸 하나님의 속성들의 표현이다.

B. 이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통제하는 여섯 가지 방면들이다.

1.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참되다. 윤리적으로 진실하며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없다.
2.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장중하다. 존중할 만하고, 고상하고, 정중하고, 건실하고, 무게 있고, 존경할 만하다 — 딤후 3:8, 11, 딤후 2:2, 비교 롬 9:21.
(딤후 3:8)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딤후 3:11)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정중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딤후 2:2)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유하여 절제하고, 정중해지고, 신중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십시오.
(롬 9:21)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3.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의롭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바르다 — 빌 3:9.
(빌 3: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4.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 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다 — 마 5:8.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사랑스럽다. 사랑할 만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느끼게 한다.
6.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평판이 좋다. 명성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고, 매력이 있고, 마음을 끌고, 친절하다 — 호 14:7.
(호 14:7)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 곡식같이 소생되고 / 포도나무같이 움 돋으리니 /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C. 미덕과 칭찬은 앞의 여섯 항목의 총합이다. 이 여섯 항목 모두에는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 마 5:16.

(마 5:16)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D.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하는 것이다 — 비교 창 1:26.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V.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빌 4:11하-13.

A.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로 취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였다 — 빌 4:4.

(빌 4: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B.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는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 골 2:2, 엡 3:3-4, 5:32.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엡 3:3-4)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⁴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1.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 행 9:3-19, 25-28, 22:6-21, 13:1-4.

(행 9:3-19)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추므로, ⁴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⁵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⁶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⁷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 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⁸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⁹그는 삼 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¹⁰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아나니아야.”라고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¹¹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¹²그는 이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되찾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¹³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며, ¹⁴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¹⁵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¹⁶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¹⁷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 형제님, 형제님이 오던 길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형제님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일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하자, ¹⁸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¹⁹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행 9:25-28)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렸다. ²⁶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려 하였으나, 모두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²⁷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²⁸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행 22:6-21)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큰 빛이 나를 두루 비추므로, 나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영광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어서,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며,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로 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님, 시력을 되찾으십시오!'라고 하자, 바로 그때 내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를 세우시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였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대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해서 모든 사람 앞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얼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 버리십시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 중에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므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 회당 저 회당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20주님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나 자신도 곁에 서서 찬동하였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행 13:1-4) 안디옥에,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라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 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절), 그리스도를 얻고(3:8, 12), 교회생활을 하는(1:8, 19, 2:1-4, 19-20, 4:1-3) 비결을 배웠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빌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⁴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빌 2:19-20)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²⁰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빌 4:1-3)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²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게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³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멘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글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13절, 영한 동번 찬송가 56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072장)).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적용했다(3:9). 이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살아 계시며, 가까우시고, 유용하시며, 유력하시다(4:5하, 영한 동번 찬송가 539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00장)).

(빌 4: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3: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빌 4:5하)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4.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서 삶으로써 온갖 환경에서 그분을 무한히 위대하신 분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 — 빌 4:8-13.

(빌 4:8-13)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⁹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¹⁰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 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¹¹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¹³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5.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빌 4:11-12, 8).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빌 4:11-12)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¹²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 4: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6. 우리가 그리스도를 능력 주시는 분으로 체험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분께 협력해야 한다.

a. 이 땅에서의 실지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삶으로써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시 42:5, 11, 80:1, 3, 7, 19.

(시 42:5)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 그분의 얼굴로 구원하시는 분을.

(시 42:11)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이신 분을.

(시 80:1)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시 80:3) 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7)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19)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b.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우리 죄들에 대한 용서를 철저하고도 신선하게 체험해야 한다 — 히 9:14, 10:19, 22, 출 24:8, 마 26:28.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출 24:8) 그러자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마 26: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c. 우리는 승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들로 올라감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속생명과 분위기에 있어서 하늘들에서 살고 있다 — 엡 2:6, 히 8:1-2, 4:14-15, 7:25-26.

(엡 2: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히 8:1-2)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²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히 4:14-15)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¹⁵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 7:25-26)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²⁶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메시지 2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함

성경: 빌 2:5-11

(빌 2:5-11)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I.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 — 빌 2:5-11.

(빌 2:5-11)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A.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이 본을 우리 안으로 주입받아야 한다.

(빌 2:5-11)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으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사람 구주이다 — 빌 2:6-9.

(빌 2:6-9)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아서 놓지 않고 보유해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이 소유하신 것 곧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으셨다 — 빌 2:6-7상.

(빌 2:6-7상)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2. 주님은 육체가 되실 때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외적

인 표현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셨다 — 빌 2:7.

(빌 2: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3. 주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 빌 2:7하-8상.

(빌 2:7하-8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a.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의 내적인 실재를 의미하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킨다.

b.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존재의 실재를 가지셨다.

c. 그리스도는 인성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4. 그리스도는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 빌 2:8하.

(빌 2:8하)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a.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신을 비우신 것보다 더 전진된 단계였다.

b.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나타냈다.

c.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의 절정이었다 — 행 8:33, 빌 3:21.

(행 8:33) 굴욕 속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5. 주님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 빌 2:9.

(빌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a. 하나님은 참사람이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 행 2:32-33, 5:31.

(행 2:32-33)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³³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행 5: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b.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부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다.

c.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

(1) 그 이름은 인격과 일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한다.

(2) ‘예수님의 이름에(직역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임—역자 주)’란 주님의 온 존재의 범위와 요소 안을 의미한다 — 빌 2:10.

(빌 2: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d.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할 때,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

으신다. 이것은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위대한 결말이다 — 빌 2:11, 고전 15:24-28.

(빌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고전 15:24-28) 그다음은 끝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시고,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²⁵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²⁶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²⁷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그중에 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²⁸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C. 이 본의 원칙에 따르면, 가장 높은 생명과 위치가 있는 사람은 기꺼이 낮아진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

II.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이며 체험적이지다 — 빌 2:5, 12-13.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빌 2:12-13)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¹³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A. 본을 세우셨고 자기 자신이 본이신 분께서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 빌 2:13.

(빌 2: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B. 우리의 생활을 위한 내적인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원칙은 비록 우리가 가장 높은 표준이나 위치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C.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 특별히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지 않으신 것에서 그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 빌 2:6-7.

(빌 2:6-7)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D.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다 — 골 3:4.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결코 그 무엇도 보배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지위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한다.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시며, 이 본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된다 — 갈 2:20.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a.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단계들은 그분께서 완전한 방식으로 살아 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모든 단계이다.

(빌 2:5-8)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b.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본이신 분을 사는 것이다 — 빌 1:21상.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 3.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때, 부활을 위한 문이 열리고 우리는 부활 능력 안으로 이끌린다 — 빌 3:10.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 a.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 엡 1:19-22.

(엡 1:19-22)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²⁰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²¹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²²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 b.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 능력 안으로 이끌실 것이다.

- 4.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우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높아져야 한다 — 빌 2:9.

(빌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 a.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으로 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본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높아지신다.

- b.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능력이다 — 빌 1:19.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Ⅲ.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한다 — 빌 2:5.

(빌 2:5-8)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A. 바울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과 표현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다 — 고전 2:16.

(고전 2:16)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살아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분의 생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C.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 빌 2:5.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1. 이 생각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여기는 것’과 4절에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빌 2: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 2: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 빌 2:7-8.

(빌 2:7-8)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 빌 1:8.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IV. 우리는 아들의 복종을 알아야 한다 — 빌 2:5-11, 히 5:7-8.

(빌 2:5-11)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⁸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히 5:7-8)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A.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고 말한다 — 요 10:30.

(요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B.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똑같이 능하시며, 함께 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신다.

C.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을 이룬다.

(빌 2:5-7)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⁶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빌 2:8-11)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1. 첫째 단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에 관한 것이다.

2. 둘째 단락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에 관한 것이다 — 빌 2:8.
(빌 2: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D.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격의 존재의 영광과 능력과 위치와 형상을 비우셨다.
- E. 아버지는 권위의 대표가 되셨고, 아들은 복종의 대표가 되셨다.
1.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한 면으로는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다른 한 면으로는 복종을 취하셨다.
 2. 주님은 노예가 되시어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3.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다. 신격 안에서의 순종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다.
- F.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다.
- G.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 — 빌 2:5.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1.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길을 취하여, 그분의 복종의 원칙을 우리의 복종의 원칙으로 취해야 한다.
 2.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모두 거역보다 더 추한 죄는 없고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 유 11, 롬 1:5, 16:26.
(유 11)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샅을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적인 길을 따라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1:5)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16:26)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는 복종의 원칙을 볼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 마 4:10, 20:28, 행 6:2, 롬 1:9, 16:18, 히 12:28, 계 22:3.
(마 4: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행 6:2) 그래서 열두 사도가 많은 제자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롬 16:18)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 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계 22: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원칙은 주님께서 복종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복종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 H. 히브리서 5장 8절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한다.

(히 5:8)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1. 고난은 그분께 순종을 가져왔다.
2.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순종할 때, 참된 복종이 나타난다.
3.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을 함께 가져오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주님은 고난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I. 구원은 기쁨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복종도 가져온다 — 롬 1:5, 16:19, 26, 딤후 3:1.

(롬 1:5)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16:19)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롬 16:26)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딤후 3:1) 그대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며,

1. 복종하는 이들만이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2.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해야 한다.
3. 주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 히 5:8-9.

(히 5:8-9)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그분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4.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 계 4:11.

(계 4: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J.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 복종이 쉬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간단한 일이 된다. 이는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 요 11:25.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림

성경: 골 1:12, 2:6-15, 19, 출 3:8, 신 8:8-9, 26:9

-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 (골 2:6-15)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⁷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⁸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⁹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¹⁰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¹¹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¹²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¹³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¹⁴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¹⁵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출 3: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 (신 8:8-9)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⁹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캐 수 있을 것입니다.
- (신 26:9)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I. 으뜸이시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 골 1:12.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A. ‘할당된 몫’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한 몫을 가리킨다 — 수 14:1.

(수 14:1)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업은 이러하다. 이 유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B.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할당받은 몫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 골 2:6-7, 갈 3:14.

(골 2:6-7)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⁷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갈 3: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 좋은 땅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예표한다 — 신 8:7-10, 엡 3:8, 빌 1:19.

(신 8:7-10)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⁸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⁹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먹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캐 수 있을 것입니다. ¹⁰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 엡 1:22-23, 2:21-22, 딤후 3:15, 마 16:18-19, 롬 14:17.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2:21-22)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²²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딤후 3: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마 16:18-19)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¹⁹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롬 14: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II.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출 3:8, 비교 고전 1:9.

(출 3: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고전 1: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A.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생명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다 — 신 8:8, 26:9, 비교 요 1:29, 12:24.

(신 8: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신 26:9)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하는 방면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 요 1:29, 12:24, 계 2:7, 롬 5:10.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2. 주님의 상(床)의 상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땅은 상,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가 되었다 — 마 26:26-28, 고전 10:17.

(마 26:26-28)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라고 하시고, ²⁷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²⁸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고전 10:17)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 B.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 골 1:12, 벰전 2:9, 사 2:5.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벰전 2: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1. 하나님은 빛이시다 — 요일 1:5.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 시 119:105, 130.

(시 119:105)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시 119: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3.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 요 8:12, 9:5.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4.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다 — 요 1:4.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믿는 이들은 빛이다 — 마 5:14, 빌 2:15.

(마 5: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빌 2: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6.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잔대이다 — 계 1:20, 시 73:16-17.

(계 1:20)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시 73:16-17)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에 /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¹⁷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시기 위한 젖이고 먹기 위한 꿀이다 — 요 6:57, 63, 68, 벰전 2:2, 시 119:103, 겔 3:3.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벰전 2:2)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시 119:103)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겔 3:3) 그러시고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그 달콤함이 꿀과 같았다.

D. 젖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아 4:11상.

1. 꿀은 병에 시달린 이들을 회복시키는 데 비해, 젖은 새로 태어난 이들을 먹인다.

2. 추구하는 이는 자기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하여 혀 밑에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때에나 궁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 사 50:4, 마 12:35-36, 눅 4:22, 엡 4:29-30.

(사 50: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마 12:35-36) 선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³⁶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 날에 낱알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눅 4:22)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라고 하니,

(엡 4:29-30)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³⁰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3.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사이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모으고 내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다 — 아 4:16, 고후 12:7-9.

(아 4:16) “복풍아, 깨어나라. / 남풍아, 오너라. / 나의 동산에 붙어서 / 그 향기를 날려 /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이 동산에 와 / 그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고후 12:7-9)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⁸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⁹그러나 주

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 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Ⅲ. 우리는 우리의 살아 있는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린 우리의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토양에서 흡수한 요소로 자랄 수 있다 — 골 2:6-7, 비교 고전 3:6, 9, 골 2:19.

(골 2:6-7)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⁷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고전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전 3: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A.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묘사하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토양 안에서 우리에게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분을 흡수할 때, 이 절들에 있는 사실들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

(골 2:8-15)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⁹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¹⁰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¹¹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시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¹²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¹³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¹⁴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¹⁵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1.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a.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의 표현도 거한다 — 골 2:9, 1:15, 19, 3:10-11.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골 1: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 1:19)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b.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다. 우리는 모든

신성한 풍성으로 채워져 그분의 표현이 된다 — 엡 3:8, 19.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c.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완전한 공급을 얻는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 비교 빌 1:19.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d. 토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歷史)와 비밀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통과하신 과정들의 모든 풍성을 담고 계신다 — 골 2:2.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2. 토양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 골 2:10.

(골 2: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3.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죽이는 능력을 지닌 요소가 있다 — 골 2:11.

(골 2:11)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4.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장사 지내는 요소가 있다 — 골 2:12상.

(골 2:12상)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5.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 — 골 2:12하.

(골 2:12하)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6.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 — 골 2:13.

(골 2:13)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7.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지워 버리는 요소가 있다 — 골 2:14.

(골 2: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8.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공중의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의 요소가 있다 — 골 2:15.

(골 2:15)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B.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주님을 누림으로써,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를 우리 안으로 흡수하여 체험적으로 그분 안에서 충만해져야 한다 — 골 2:10상, 4:2.

(골 2:10상)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골 4:2) 기도에도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1.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하려면, 우리는 연한 새 뿌리들을 가져야 한다 — 비교 고후 4:16.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실패와 약함을 잊어버리고 다만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해야 한다. 시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란다 — 눅 8:13, 마 14:22-23, 6:6, 골 2:7상, 19.
- (눅 8:13)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 (마 14:22-2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²³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 (마 6: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 (골 2:7상)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4

하나님의 비밀 — 그리스도

성경: 골 2:2-3, 9-13, 3:1, 4:3, 엡 3:8-9, 요 1:1, 14, 16, 고전 6:17

- (골 2:2-3)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³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 (골 2:9-13)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¹⁰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¹¹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시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¹²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¹³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 (골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 (골 4: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 (엡 3:8-9)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⁹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 (요 1: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I. 성경에서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이다 — 막 4:11, 롬 16:25-26, 골 1:26-27, 2:2, 4:3, 엡 1:9, 3:3-4, 9, 5:32, 6:19.

- (막 4: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 (롬 16:25-26)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²⁶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 (골 1:26-27)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²⁷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 (골 4: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 (엡 1: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엡 3:3-4)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⁴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엡 6:19)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II.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III. 성경에는 다섯 가지 위대한 비밀이 있다.

A.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의미와 목적이시다 — 창 1:1, 계 4:11, 엡 3:9.

(창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계 4: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B. 사람의 비밀 또한 하나님이다 — 창 1:26, 슥 12:1, 고전 2:11.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슥 12: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고전 2:11)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C.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 골 2:2.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D.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 엡 3:4, 골 4:3.

(엡 3: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 4: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E.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확대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 엡 1:22-23, 4:4, 16, 5:30, 32.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5:30)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IV. 에베소서에서 ‘비밀’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A.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셨지만,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비밀이었다 — 엡 1:9.

(엡 1: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B.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은 비밀이고, 이 비밀이 연합된 영 안에서 밝혀지는 것이 비밀의 계시이다 — 엡 3:3, 5.

(엡 3: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엡 3:5)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C.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이고, 이 비밀과 함께 경륜 곧 비밀의 경륜이 있다 — 엡 3:9.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D.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 엡 3:4, 골 4:3.

(엡 3: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 4:3)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내가 이것 때문에 간혀 있습니다).

E.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 — 고전 6:17, 엡 5:32.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V.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 골 2:2.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A.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비밀의 비밀이시다.

B. ‘하나님의 비밀’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C.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 요 1:1, 14.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시지만, 그분께는 어떤 역사 혹은 이야기가 있으시다 — 롬 16:26, 시 90:2.

(롬 16:26)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시 90:2) 산들이 생기기 전 /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3.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하신 과정을 가리킨다. 이 과정은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영광스럽게 되심, 보좌에 앉으심을 포함한다 — 요 1:12-14, 29, 3:14, 12:24, 14:20.

(요 1:12-14)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¹⁴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D.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 골 2:3.

(골 2: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1.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있다 — 엡 1:8, 17.

(엡 1: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2.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 롬 16:27, 11:33.

(롬 16:27)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롬 11:33)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3.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경륜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 엡 1:10, 3:9, 5:32.

(엡 1: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4. 지혜와 지식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리킨다.
5.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관련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 골 2:2-3.

(골 2:2-3)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³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Ⅶ.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시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A. ‘신격의 모든 충만’은 신격 전체, 곧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 ‘신격’이라는 단어는 신격의 존재를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2. 신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격의 충만은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충만이다 — 마 28:19, 고후 13:14.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주고,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시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몸의 형체를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 a.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입으신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며,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요 1:14, 롬 8:3, 히 2:14.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 b.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신격의 충만이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지만,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 — 요 1:1.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 c.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부터,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신격의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격의 충만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몸(빌 3:21) 안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한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B.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 풍성은 어떤 사물의 양(量)이지만, 충만은 그 사물이 흘러나오거나 넘쳐흘러서 표현된 것이다.

2.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의 표현도 거한다.

a.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풍성의 넘쳐흐름이며, 이 넘쳐흐름이 곧 하나님의 표현이다.

b. 신격의 충만은 신격의 표현, 곧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이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3. 신격은 옛 창조물인 우주와 새 창조물인 교회 모두 안에서 표현된다 — 골 1:15, 18.

(골 1: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께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었고, 우리는 다 이 충만에서부터 받았다 — 요 1:14, 16.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는 은혜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을 가리킨다. 은혜의 풍성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은혜의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 골 2:9.

(요 1: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2.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의 충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때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3.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바다의 밀려오는 파도, 즉 파도 위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요 1: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VII.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 골 2:9-10.

(골 2:9-10)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¹⁰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A.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충만해졌습니다’는 헬라어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함축한다.

(골 2: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B.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 고전 1:30, 엡 3:8.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 되고 그분과 하나이다 — 갈 3:27, 고후 5:17.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2.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고, 그분과 동일시되었으며,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과 합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 골 1:28, 롬 7:2-4, 고전 6:17.

(골 1: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롬 7:2-4)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³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⁴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시고 통과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며,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의 모든 소유를 받는다.

4. 그분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역사이며,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이다.

5. 그 결과로 그분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며, 그분께서 체험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 골 2:11-13, 3:1.

(골 2:11-13)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¹²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¹³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 C.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깨달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 엡 3:17.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 D. 이 충만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완전한 공급을 주고, 우리를 충만하고 온전하며 완전하게 해 준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 E. 우리는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다함이 없는 충만을 갖고 있으

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된다 — 엡 3:8, 골 2:9-10.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골 2:9-10)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¹⁰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를 나무랄 데 없게 해 주는 것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 주는 것

성경: 살전 3:13, 5:23-24

(살전 3:13)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전 5:23-24)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²⁴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I. 우리가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 — 살전 3:13.

(살전 3:13)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총체이자 사람의 총대표이며 사람의 행동하는 대리인이다.

1.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요 14:1, 16:22, 행 11:23)에다 우리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히 10:22, 요일 3:20)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마 9: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은 왜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찢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14:1)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요 16:22)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행 11: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요일 3:20)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상태와 유기적이고 내재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a.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영을 훈련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면, 영은 속에 갇혀 그 역량을 나타낼 수 없다 — 마 5:3, 8, 시 78:8, 엡 3:16-17.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78:8) 자기들의 조상처럼 / 고집 세고 거역적인 세대, /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세대, / 영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엡 3:16-17)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 사람에게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b. 혼은 사람 자신인 데 비해,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마음은 우리 전 존재의 행동하는 대리인, 행동하는 대행자이다.

c. 우리 신체의 활동과 움직임은 신체의 심장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의 생활, 곧 우리가 활동하고 처신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심장, 곧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B.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게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받고, 생명의 법은 자유롭게 장애 없이 운행하지 못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통제를 받는다 — 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잠 4: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 12:33-37)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그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34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35선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가 쌓아 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36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 날에 낱알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37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겔 36:26-27)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27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C.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주님과 관계에서 변하기가 쉽다 — 비교 딤후 4:10, 마 13:3-9, 18-23.

(딤후 4:10) 데마는 현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마 13: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4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또 어떤 씨들은 흙이 알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썩어 나갔지만, 6해가 돌아 내리쬘니,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으며, 7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습니까. 8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9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마 13:18-23)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19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또 흙이 알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D. 타고난 인간 생명에 따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 — 렘 17:9-10, 13:23.

(렘 17:9-10)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10나 여

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 속부분을 시험하며 / 각 사람의 길과 / 그 행실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렘 13:23) 구스인이 그 피부를, /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E.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많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나무랄 데 없는 마음
 이다 — 시 57:7, 108:1, 112:7.

(시 57:7) 제 마음은 견고합니다. 오, 하나님! / 제 마음은 견고합니다. / 참으로 저는 노래하고 찬송하
 랍니다.

(시 108:1) 오, 하나님! 제 마음은 굳건합니다. / 참으로 저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 제 영광으로도 찬송하
 랍니다.

(시 112:7)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하여 견고하다네.

F.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새로워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
 이다 — 겔 36:26, 고후 4:16.

(겔 36: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
 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G.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상태, 곧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점유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진 상태로 견고하게 되고 건축될 수 있다 — 딤후 3:5, 롬 6:19, 22.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에 따라 새로 낚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롬 6:19) 여러분의 육체가 악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롬 6: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
 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H.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의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분의 내적인 운행에 협력해야 한다 — 히 2:11, 시
 139:23-24.

(히 2: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
 주십시오. ²⁴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을 원하신다 — 겔 36:26, 마 13:4, 19, 고후 5:14, 비교 출
 32:9, 렘 48:11.

(겔 36: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마 13:4)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마 13: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
 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출 3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렘 48:11)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 왔으며 / 양금 가라앉았어도 /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어진 적이 없었고 / 쫓겨난 적도 없었다. /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2.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 마 5:8, 시 73:1, 25, 렘 32:39, 시 86:11
하, 딤후 2:22, 딤펢 1:5.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73:1)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 마음이 순수한 이들에게 좋으신 분.

(시 73: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렘 32:39) 나는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 뒤를 이을 자손의 선을 위하여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시 86:11하)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딤펢 1: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 시 42:1-2, 아 1:1-4, 고후 3:16, 살후 3:5, 영한 동번 찬송가 546장, 547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059장, 내 마음의 노래 214장), 엡 6:24, 요 15:9-10, 21:15-17, 마 26:6-13, 요일 2:5.

(시 42:1-2) 사슴이 시냇물을 / 찾아 헐떡이듯이 / 오, 하나님! / 제 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2제 혼이 하나님을,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하는데 / 저는 언제나 가서 /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 1:1-4) 솔로몬의 아가. 2“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 3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4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러가렵니다—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살후 3: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 15:9-1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0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16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마 26:6-13)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⁷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⁸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⁹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니, ¹⁰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¹¹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¹²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¹³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요일 2:5)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4.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 행 24:16, 요일 3:19-21, 히 10:22, 요일 1:7, 9, 딤후 1:5, 빌 4:6-7, 골 3:13-15.

(행 24: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일 3:19-21)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²⁰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²¹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1: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딤후 1: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⁷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골 3:13-15)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¹⁴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¹⁵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I.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계속 새로워짐으로 거룩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되어 나무랄 데 없게 되는 동안,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을 지닌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고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성이 되어 간다 — 계 21:2, 요일 5:11-12, 벰후 1:4.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

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벧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II. 하나님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우리를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분별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 히 13:12, 10:29, 롬 6:19, 22, 엡 5:26, 살전 5:23-24.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롬 6:19)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롬 6: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살전 5:23-24)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²⁴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A.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심으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엡 1:4-5, 히 2:10-11.

(엡 1:4-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히 2:10-11)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¹¹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B.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영과 혼과 몸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완전히 똑같이 만드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부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 살전 5:23.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양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벽하게 지키신다.
2.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먼저 협력하는 책임을 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적시심 안에 두어 보존되게 해야 한다 — 살전 5:12-24.

(살전 5:12-24) 형제님들, 우리가 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¹³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사이에서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¹⁴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 권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¹⁵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추구하십시오. ¹⁶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¹⁹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²⁰신언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²¹모든 것을 살펴보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²²모든 종류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²³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 무탈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²⁴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C.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여 보존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는 상태에 있게 해야 한다.

1.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죽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

a.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 내는 것이다 — 살전 5:16-18.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b.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을 죽이는 상황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 비교 민 6:6-8, 고후 5:4.

(민 6:6-8)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⁷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⁸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c.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 요 4:24, 롬 1:9, 빌 2:1.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2.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모든 더러움과 오염에서 지켜야 한다 — 고후 7:1.

(고후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으니,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3.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 행 24:16, 롬 9:1, 비교 8:16.
 (행 24: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롬 9: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4.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에 두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에 주의해야 한다 — 말 2:15-16, 롬 8:6, 고후 2:13.
 (말 2:15-16)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는 영이 넉넉하신데 어째서 하나이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누구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¹⁶“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혼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배신하지 마라.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후 2: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 D.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여 보존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 곧 우리 혼의 부분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 빌 2:2, 5, 1:8, 2:13.
-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빌 2: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롬 12:2),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적셔져야 하며(엡 3:17, 19), 우리의 의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하고(빌 2:13, 비교 아 4:4상, 7:4상),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막 12:30).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 2: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4:4상) 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아 7:4상)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가에 있는 / 헤스본 연못 같으며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길은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를 빛 안으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에 따라 우리의 결점과 실패와 결함과 실수와 잘못과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 요일 1:5-9.

(요일 1:5-9)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⁶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⁷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⁸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⁹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 a. 우리의 생각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한다.
 - b. 우리의 감정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심지어 육체적인 방식을 자백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 c. 우리의 의지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거역이라는 세균을 자백해야 한다.
 - d.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에서 막힌 것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 있고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 E.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보존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고 몸의 생활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수행해야 한다 — 롬 12:1-2, 살전 4:4, 5:18.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²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살전 4:4) 각자 거룩하게 됨과 존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릇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살전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1. 우리의 타락한 몸인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이지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집회 장소’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성전이 된다 — 롬 6:6, 12, 14, 7:11, 24, 고전 6:15, 19.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롬 6: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롬 6: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롬 7:11)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롬 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고전 6: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고전 6: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 고전 6:20.
(고전 6:2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3.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빌 1:20.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혼인 옛사람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죄의 몸은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것이다 — 롬 6:6.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 죄악된 것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의에게 노예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 롬 6:13, 18-19, 22, 단 5:23.

(롬 6:13)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롬 6:18-19)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¹⁹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롬 6: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 5:23) 오히려 하늘들의 주님이신 분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셨고, 하나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시어 왕과 왕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셨으며,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 a.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고, 각자 거룩하게 됨과 존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릇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 살전 4:3-4.

- b.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살전 4:5.
(살전 4: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나쁜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6.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되는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아야 한다 — 고전 9:27, 계 21:2.

(고전 9:27)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

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6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성경: 살전 1:1, 3-6, 10, 요일 1:5, 2:27, 4:16, 5:11-12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전 1:3-6)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⁴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⁵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시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시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I. 삼일 하나님이 신약의 구조이시다 — 마 12:28, 28:19, 요 15:26, 행 2:33, 롬 8:11, 갈 4:6, 엡 3:16-17, 4:4-6, 히 9:14, 벧전 1:2, 계 1:4-5.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행 2: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갈 4: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엡 3:16-17)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II.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삼일 하나님을 알게 된다 — 요일 1:5, 2:27, 4:16, 5:11-12.

-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A. 삼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 요일 4:13-15.

- (요일 4:13-15)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¹⁴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¹⁵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B. 우리는 주관적인 하나님을 내적으로 누림으로써 삼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요일 2:27, 4:4.

-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 (요일 4:4)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C.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노선과 생명의 성장의 과정 안에 있어야 한다. 생명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요일 2:13-18.

- (요일 2:13-18)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¹⁴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¹⁵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

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¹⁶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¹⁸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각인 것을 압니다.

Ⅲ.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실 때, 그분은 단지 우주적으로 광대한 분으로서 보좌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 되신다 — 계 4:2-3, 5:6, 요일 3:19-21,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³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요일 3:19-21)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²⁰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²¹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A. 우리는 광대한 우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개인적인 영역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 — 히 8:10-11,

(히 8:10-11)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¹¹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B. 신약의 관심사는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거하러 오신 삼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속부분들 안으로 확장되기를 갈망하신다 — 엡 3:14-17상, 요일 3:19-21,

(엡 3:14-17상)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¹⁵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¹⁶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요일 3:19-21)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²⁰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²¹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C.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아는 신약의 방식은 개인적이고 상세하며 체험적이다 — 요일 2:20, 27, 히 10:16,

(요일 2: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히 10:16) “그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에 넣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D. 삼일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길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IV.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신약은 완전히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있다 — 마 28:19, 계 1:4-5, 22:1-2.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A. 신약 전체는 삼일 하나님과 관련된다. 삼일 하나님은 신약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이시다 — 엡 3:16, 4:4-6.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B.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그림을 제시한다 — 눅 15:3-32, 엡 2:18.

(눅 15:3-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⁴“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⁵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⁶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⁷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 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⁸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⁹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¹⁰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¹¹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¹²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¹³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작은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¹⁴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¹⁵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¹⁶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¹⁷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¹⁹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야겠습니다.’ ²⁰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²¹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²²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

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²³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²⁴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²⁵한편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²⁶그래서 그가 중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²⁷중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²⁹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대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노예처럼 일해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런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³¹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³²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엡 2:18)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C. 성경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누림과 음료로, 생명과 빛의 원천으로 일해 넣으신다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쓰였다 — 시 36:8-9.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D.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들의 체험과 누림이 되게 하여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엡 1:3-23, 4:16, 례 21:2, 10-11.

(엡 1:3-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⁴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⁷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⁹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³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¹⁴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¹⁵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¹⁶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¹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¹⁸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¹⁹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²⁰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²¹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²²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¹¹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V. 데살로니가전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쓰였다 — 살전 1:1.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A. 한 면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고, 다른 한 면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1.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요 1:12-13, 고전 1:30, 6:17.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2.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요 3:15, 15:1, 5.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사실상 그는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 살전 1:1, 고전 1:2, 12:4-6.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고전 12:4-6)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⁵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⁶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둘 다 그 영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그 영이 함축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분리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이신 아버지가 계실 때마다 둘째이신 아들과 셋째이신 그 영 또한 계신다 — 마 12:28, 롬 8:11, 갈 4:4-6.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갈 4:4-6)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⁵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⁶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3.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세 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 고후 13:14.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a. 우리는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분리할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을 그 영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셋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 요 14:10-11.

(요 14:10-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¹¹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

- b. 영원한 동시 존재에 있어서 신격의 셋은 서로 구별되지만, 영원한 상호 내재는 신격의 셋을 하나 되지게 한다.

4. 신성한 경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연속적인 세 단계에서 각각 일하시고 나타나신다 — 엡 1:3-14.

(엡 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⁴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⁷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⁹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¹³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¹⁴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

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a.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창시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 엡 1:3-6.

(엡 1:3-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⁴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⁶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b. 아들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창시하시고 시작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 엡 1:7-12.

(엡 1:7-12)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⁸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⁹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¹⁰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¹¹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¹²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c. 그 영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성취하신 것을 집행하시고 적용하신다 — 엡 1:13-14.

(엡 1:13-14)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¹⁴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d. 선택은 아버지께 속하고, 구출은 아들에게 속하며, 나누어 주고 전파하는 것은 그 영께 속한다 — 살전 1:3-6, 10.

(살전 1:3-6)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⁴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⁵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⁶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전 1: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시게 대하여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5. 아들은 오실 때 아버지와 함께 그 영에 의해 오신다. 아들은 그 영으로서 실재화되시며, 그 영은 아들로써 아버지와 함께 오신다 — 요 14:26, 15:26.

(요 14: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C.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 28:19, 엡 4:4-6.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엡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⁵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⁶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1.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일은 없다. 오히려 교회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 고후 13:14.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되셨다 — 요 7:37-39, 빌 1:19.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³⁸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³⁹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3. ‘과정을 거치신’이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중요한 단계들인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가리킨다.

- a.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주님은 구속을 성취하셨고, 옛 창조물을 종결하셨으며, 사탄과 죽음을 멸망시키셨다 — 엡 1:7, 롬 6:6, 히 2:14.

(엡 1: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 b.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새 창조물을 발아시키셨다 — 고후 5:17.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c. 이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상.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후 3:17상)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4.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분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신다 — 요 14:20.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a.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를 접촉하시며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 고전 15:45하.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b.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요 14:10-11, 16-17, 20.

(요 14:10-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¹¹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십시오.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¹⁷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c.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영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이다.

D.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본다면, 이 이상이 우리의 생각과 활동과 생활 전체를 통제할 것이다 — 잠 29:18상, 행 26:19.

(잠 29:18상)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심으로써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대장)와 선구자**

성경: 히 2:10-11, 6:19-20, 13:13

- (히 2:10-11)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기록하게 하시는 분과 기록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 (히 6:19-20)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 줍니다. ²⁰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 (히 13: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I.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A.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심지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 사 43:7, 고전 6:20, 10:31, 고후 3:8-9, 18, 4:1, 5, 출 40:34.
-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 (고전 6:2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 (고후 3:8-9)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⁹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4: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출 40:34)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 B.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통해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 창 1:26, 엡 3:16-17상, 21.
-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 (엡 3:16-17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엡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C.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1. 빛이신 하나님은 등이신 어린양 안에서, 어린양을 통해서 비추시며, 결국 성 전체를 통해 비추심으로써 성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지니게 하신다 — 계 21:10-11, 18, 23, 4:3.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21: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4: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2.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을 본다. 곧 빛이 등 안에서 벽옥을 통해 비치는 것을 본다.

D.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창시자(대장)이시다 — 히 2:3, 10.

(히 2:3)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 예수님은 신성한 영광의 씨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자라 나오시어 영광 가운데서 꽃 피셨다 — 요 12:23-24, 눅 24:26, 고전 15:36, 43상.

(요 12:23-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²⁴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눅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고,

(고전 15:36)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고전 15:43상) 육된 것으로 뿌려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2. 그분께서 자라 나오심으로써, 그분의 인성과 인간 본성을 포함하는 그분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 안으로 이끌렸다.

3. 그분은 '영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표현 안에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이시다 — 영한 동변 찬송가 50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071장).

E. 창시자와 대장과 개척자와 선구자(히 6:20)이신 그리스도는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동일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전 2:7, 살전 2:12).

(히 6:20)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고전 2:7)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살전 2: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F. 구원의 창시자(대장), 영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씨
이시다 — 골 1:27, 요일 3:9.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요일 3: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1. 우리의 구주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셨다. 그분의 온 일생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며 싸우는 과정이었다 — 눅 12:49-50.

(눅 12:49-50)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⁵⁰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씨가 자라는 것은 싸우는 과정이다.

3. 영광은 신성한 요소가 우리 속에서부터 꽃 핀 것이다.

4.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은 우리 안에 씨로 심어진 신성한 요소의 영광이다 — 살후 1:10.

(살후 1:10)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또 사람들은 모든 믿는 이(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안에 계신 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G.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표현인 영광 안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시온에 이르는 대로를 가도록 우리를 돕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한다 — 히 10:32-35, 고후 4:16-18, 시 84:5-7, 고후 3:18, 롬 8:17-18, 21.

(히 10:32-35) 여러분이 빛 비춤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서 큰 싸움을 견뎌 낸 지난날들을 기억하십시오. ³³여러분이 한 면으로는 비난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다른 면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³⁴여러분 자신에게 더 좋고 변함없는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간혀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를 약탈당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³⁵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고후 4:16-18)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⁷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¹⁸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 84:5-7) 주님께 힘을 얻고 /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⁶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 그들이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 이른 비가 정녕 그곳을 복으로 덮습니다. ⁷그들은 힘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 /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아옵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17-18)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¹⁸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롬 8:21)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H. 우리 구원의 창시자(대장)이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의무를 완수하신다 — 히 2:16-18, 7:25, 8:2.

(히 2:16-18)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¹⁷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¹⁸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히 7: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 8: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I. 구원의 창시자(대장)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유기적으로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 이러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 — 히 2:10-11, 엡 1:4-5, 살전 5:23, 롬 5:10, 15:16, 엡 5:26.

(히 2:10-11)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¹¹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엡 1:4-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⁵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살전 5: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롬 15: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1.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자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2.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 주는 노선이며, 이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한다.

a. 찾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한다 — 벰전 1:2, 눅 15:8-10, 17-21.

(벰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눅 15:8-10)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

고 집 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⁹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 옷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¹⁰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눅 15:17-21)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¹⁹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²⁰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²¹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 b.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이며,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 히 13:12.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 c.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 고후 5:17, 요 1:12-13.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 d.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계속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 — 롬 12:2하, 엡 4:23, 갈 6:15.

(롬 12:2하)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엡 4: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갈 6:15)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 e.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 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가 되게 한다 — 고후 4:16, 고전 3:12.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 f.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하심, 곧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를 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롬 8:28-29, 고후 3:18.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²⁹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g.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이 되게 한다 — 빌 3:21, 롬 8:23.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롬 8: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II. 히브리서의 목표와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 히 6:19–20, 13:13, 영한 동변 찬송가 549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14장).

(히 6:19–20)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닦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 줍니다.
²⁰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 13: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A.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곳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종교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1. 진영은 땅에 속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 조직을 상징한다.
2.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지게 하는 땅에 속한 영역이다.

B. 우리는 체험적으로 오늘날 실지적인 지성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오늘날 실지적인 진영이 있는 종교 밖에 있어야 한다.

1. 우리가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2. 우리가 영 안에 머물면서 영광 안에 계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낮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3. 진정한 신약의 사역은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곧 휘장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며, 우리를 강화시켜 진영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몸을 위해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 있게 한다 — 고후 11:2–3, 23–33.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³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고후 11:23–33)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²⁴나는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다섯 번 맞았고, ²⁵세 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 파선을 당하였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²⁶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에서 위험을, 강도에게 위험을, 동족에게 위험을,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도시에서 위험을, 광야에서 위험을, 바다에서 위험을, 거짓 형

제들에게 위협을 당하였으며, ²⁷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밤을 지새우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²⁸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²⁹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³⁰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³¹주 예수님의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께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³²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수하에 있는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켰지만, ³³사람들이 나를 줄 달린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을 통해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4. 휘장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며, 그 결과 우리는 진영 밖에 있는 목마른 영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장비된다.

C.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 딤후 4:7-8.

(딤후 4:7-8)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⁸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며,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며 활용해야 한다 — 딤후 1:6-7, 롬 8:5-6, 히 4:12.

(딤후 1:6-7)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⁷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롬 8:5-6)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⁶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어 찢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 안에 있는 한 사람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직접 접촉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지시고 주입되시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재생산이 될 수 있다 — 고후 3:18.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3.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 즉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와 싹 난 막대기와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누림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 히 9:3-4.

(히 9:3-4)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⁴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D.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 모세는 진영 밖의 장소로 옮겨 갔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곳으로 가서 모세와 함께 모였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 출 33:7-11, 비교 민 12:6-8.

(출 33:7-11) 모세는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하였다. 그는 그것을 회

막이라고 불렸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⁸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 서서, 모세가 천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⁹모세가 천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의 입구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¹⁰백성은 구름 기둥이 천막 입구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경배하였다. ¹¹여호와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민 12:6-8)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 너희 가운데 신언자가 있으면, / 나 여호와가 이상 중에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 내가 꿈속에서 그와 말할 것이다. ⁷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리하지 않나니 /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⁸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고, 분명히 말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말하지 않거니와 / 그는 나 여호와와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거슬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1.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에 의해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 우상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만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이 되었다 — 고전 10:5-7, 겔 14:3, 요일 5:21과 각주 3 첫째 단락.

(고전 10:5-7)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⁶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⁷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된 것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겔 14:3) “사람의 아들이여,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우상들을 두고, 자기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을 제 얼굴 앞에 두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하겠느냐?”

(요일 5:21)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 a. 자기 치장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 출 32:1-3, 33:5-6, 창 35:2-4, 비교 출 28:2, 사 60:21.

(출 32:1-3)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²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³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출 33:5-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⁶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

(창 35:2-4)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³일어나서 벰엘로 올라가자. 내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⁴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은 세겟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그것들을 감추었다.

(출 28:2)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사 60:21) 그때 네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어 /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니 / 그들은 나를 아름답게 하도록 / 내가 심은 가지요 /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 b.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용하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

나눔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 c. 우상숭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 곧 누림과 오락과 유희를 숭배하는 것이다 — 출 32:6, 18-19, 비교 시 36:8-9.

(출 32:6) 그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출 32:18-19) 모세가 말하였다. / “이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 패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이다.”¹⁹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서 송아지를 보았고 또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분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들을 산 기슭에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 d. 우상숭배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가면을 쓴다 — 출 32:4-6, 왕상 12:26-30.

(출 32:4-6)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조각 연장으로 모양을 내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의 신이다!”⁵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께 명절을 지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⁶그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왕상 12:26-30)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왕국이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²⁷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가면, 그 마음이 자기들의 주군,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²⁸ 왕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여러분의 신들을 보십시오.”²⁹ 그리고 나서 하나는 벧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³⁰그런데 이러한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였다.

- e.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혼합시킨다 — 출 32:4-6, 21-24.

(출 32:4-6)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조각 연장으로 모양을 내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의 신이다!”⁵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께 명절을 지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⁶그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출 32:21-24)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그대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대는 이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²²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²³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 ²⁴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찢어서 내십시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2.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백성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천막을 옮겨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을 쳤다. 그러자 그의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다 — 출 33:7.

(출 33:7) 모세는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하였다. 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3. 진영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징한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명목상으로는 주님께 속해 있지만, 사실상 주님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경배하고 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한다.

4. 모세가 천막을 옮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에서 분별시킨 후에, 주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 출 33:11.

(출 33:11) 여호와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a. 하나님과 모세는 위대한 사업에서 함께 일을 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다.

b.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 출 33:14.

(출 33: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c.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나가 주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메시지 8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

성경: 히 1:3, 12:1하-2상, 고전 9:24, 살후 3:5

- (히 1: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 (히 12:1하-2상)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²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 (고전 9:24)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 (살후 3: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 히 12:2상.

- A. ‘주목합시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 — 히 12:2상.
(히 12:2상)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 B.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들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옛 종교인 유대교와 그 박해에서, 또한 땅에 속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했다 — 히 1:3.
(히 1: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 C.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하고자 한다면(히 1:3),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
(히 1: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 D.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히 2:9) 놀라우신 이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이시다.
(히 2: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E. 우리가 그분 이외의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함으로써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 히 12:1하.
(히 12:1하)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II.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의 경주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한다 — 고전 9:24.

(고전 9:24)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A. 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이다 — 고전 9:24, 엡 2:8-9, 고전 3:14-15.

(고전 9:24)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엡 2:8-9)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⁹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3:14-15)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¹⁵그 일이 불타 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B. 사도 바울은 경주를 하여 상을 얻었다 — 고전 9:26-27, 빌 3:13-14, 딤후 4:7-8.

(고전 9:26-27)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²⁷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 3:13-14)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¹⁴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겨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딤후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⁸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1. 무거운 짐은 무거운 것이나 짐이나 방해물이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경주에서 이기는 데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방해되는 짐을 벗어 버린다.

2. 히브리서 12장에서 엮어매는 유일한 죄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며,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고의적인 죄였다 — 히 10:25-26.

(히 10:25-26)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²⁶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은 더 이상 없고,

3.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엮어매는 죄는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 언약의 길에서 히브리 믿는 이들을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누르는 것이었다.

4.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 살후 3:5.

(살후 3: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 — 요일 4:19, 롬 5:5.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롬 5: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b. 이 인내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것이다 — 비교 계 1:9.

(계 1:9)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Ⅲ.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기원자와 개시자와 근원과 원인이시다 — 히 12:2상.

(히 12:2상)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A.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 롬 3:22, 갈 2:16.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 롬 10:17.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2.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

3.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믿음이다 — 벧후 1:1, 골 1:12.

(벧후 1: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4.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하)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신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5.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시는 것이다.

B. 믿음은 실질화하는 능력인 ‘여섯째 감각’이다. 우리는 이 감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에 실질을 부여하여 실질화한다 — 히 11:1.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1. 실질화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2. 우리 오감(五感)의 기능은 바깥세상의 것들을 실질화하는 것, 곧 객관적인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다.

3.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한 것이며 코는 냄새를 맡기 위한 것이듯이, 믿음 곧 우

리 믿음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질화하는 기관이다
— 고후 4:13.

(고후 4: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a.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영 곧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께 관해 체험한 것들을 믿고 말해 내야 한다.

b.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다.

4. 우리는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본다 — 고후 4:18.

(고후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a.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 삶이다 — 롬 8:24-25, 히 11:27, 벧전 1:8, 갈 6:10.

(롬 8:24-25)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²⁵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히 11:27)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벧전 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갈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b. 교회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로의 하락이다.

c.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회복하는 것이다.

5.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행복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 히 11:6상.

(히 11:6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7.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 히 11:6하.

a.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요 8: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하시니,

(전 1:2)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 중의 허무, / 허무 중의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b.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반드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히 11:5.

(히 11:5)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

거를 지냈습니다.

-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눅 9:23.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 d. 주님은 “나는 위대한 ‘-이다’이다. 나는 ‘-이다’이다. 너는 내가 ‘-이다’인 것과 너는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비교 요 8:24, 28, 58.
(요 8:24)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요 8:2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 8: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하시니,
- e. 믿음은 이것이다 —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 존 넬슨 다비.

IV.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 믿음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 히 12:2상.

(히 12:2상)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 A.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 히 12:1하-2상.
(히 12:1하-2상)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엎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²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 B.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신다 — 고후 3:18.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C.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여 우리 안에 증가하시게 했는가에 달려 있다 — 롬 12:3.
(롬 12: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 1. 진보 단계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생긴다 — 살전 5:17.
(살전 5: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 2.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

도로 읽음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 히 4:2, 16, 롬 10:12, 딤후 2:22, 엡 6:17-18.

(히 4:2)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롬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3.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넘쳐흐르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의 상호성이 있게 된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 — 롬 1:12, 몬 6.

(롬 1:12) 그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몬 6)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갖가지 좋은 것을 충분히 알도록, 그대의 믿음의 교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D. 우리의 거듭난 영인 우리 믿음의 영이 사탄이 조직하고 강탈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 — 요일 5:4.

(요일 5:4)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E. 억누를 수 없고 무한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도록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보냄을 받은 이기는 이들과 순교자들이 되게 한다 — 눅 18:8, 빌 2:30, 롬 16:3-4, 행 20:24, 딤펢전 1:4.

(눅 18: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빌 2:30)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게 되었지만, 나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롬 16:3-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⁴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 20: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딤펢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메시지 9

진정한 교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고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과 표현

성경: 벰전 1:7, 19, 2:4, 6-7, 3:4, 벰후 1:1, 4

- (벰전 1:7)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 (벰전 1: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 (벰전 2: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 (벰전 2:6-7)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⁷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 (벰전 3: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씨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 (벰후 1: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 (벰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 마 23:16-26, 삼상 16:7, 눅 16:15, 9:54-56, 벰전 3:4, 빌 3:7-8.

(마 23:16-26) 눈먼 안내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¹⁷어리석고 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큼니까? 금입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¹⁸또 여러분은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¹⁹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큼니까? 예물입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²⁰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²¹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²²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²³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박하와 아니스와 대회향의 십분의 일은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²⁴눈먼 안내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살이는 걸러 내면서, 낙타는 삼킵니다! ²⁵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탈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²⁶눈먼 바리새인 여러분,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삼상 16:7) 그러나 여호와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께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눅 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눅 9:54-56)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니, ⁵⁵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

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⁵⁶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시고는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벤전 3: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빌 3:7-8)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⁸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A. 믿는 이들의 합당한 가치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다음의 방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1. 교회 건축을 위한 모퉁이의 머리 돌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가치 — 시 118:22, 벤전 2:7.

(시 118:22)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습니다.

(벤전 2: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2. 그들의 친척과 비교되는 주 예수님의 가치 — 마 10:37-38, 눅 18:26-30, 벤전 1:1, 17, 2:11상.

(마 10:37-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³⁸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눅 18:26-30)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²⁷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²⁸그러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하니, ²⁹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³⁰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보상으로 받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벤전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

(벤전 1:17)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벤전 2:11상)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3. 땅에 속한 보물과 비교되는 정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가치 — 욥 22:23-28, 마 12:18-21, 사 42:1-4, 벤전 1:18-20.

(욥 22:23-28)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자네는 세워질 겉세. / 자네 천막에서 불의를 멀리 치워 버리고 ²⁴자네 금괴를 티끌 속에 / 자네 오빌의 금을 마른강 돌들 속에 놓아둔다면 ²⁵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괴가 되시고 / 자네에게 값진 은이 되실 것이네. ²⁶그때 자네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 하나님 향하여 자네 얼굴을 들게 될 겉세. ²⁷자네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시리니 / 자네는 자네 서원을 이루게 될 겉세. ²⁸또한 자네가 무언가를 선포하면 그것이 자네에게 이루어지리니 / 빛이 자네의 길 위에 비치게 될 겉세.

(마 12:18-21)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곧 내 혼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고, 그는 정의를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¹⁹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²⁰그가 정의를 가져와 승리하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²¹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둘 것이다.”

(사 42:1-4) “내가 불드는 나의 종, / 내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이가 여기 있다. /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고 /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²그는 외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 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³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 가까스로 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 진리 안에서 정의를 가져오리라. ⁴땅에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 그는 피곤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리니 / 해안 지역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리라.”

(벤전 1:18-20)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¹⁹흙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²⁰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4. 모든 것과 비교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 — 벤전 1:8, 벤후 1:2-3, 8, 2:20, 3:18.

(벤전 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벤후 1:2-3)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³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벤후 1: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벤후 2:20)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것들에 얽매어 정복된다면, 그들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벤후 3:18)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 우리는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이,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이 세 가지 기본 요인으로서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의 기적적인 보배로운 구조물로 세워진 것이라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세 가지 기본 요인 중에서 금은 성의 기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주는 성의 문으로서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며, 성의 벽옥 성벽은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 계 21:18-21, 비교 고전 3:12.

(계 21:18-21)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¹⁹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²⁰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랍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²¹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B.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 존재를 선택할 것이다 — 막 9:7-8, 고후 2:10, 4:7, 벤전 1:8.

(막 9:7-8)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⁸그들이 즉시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4: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벤전 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C. “네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 내면 / 네가 나의 입이 되어” — 램 15:19, 비교 16절.
(램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1. 우리는 우리에게 나누어 준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젖과 신선한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주님을 맛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욥 23:12, 벰전 2:2-5, 시 119:103, 신 8:8, 아 4:11상.

(욥 23:12) 내가 그분 입술의 계명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며 / 그분 입의 말씀을 내게 나누어 준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네.

(벰전 2:2-5)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³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⁴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⁵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제가 됩니다.

(시 119:103)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신 8: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아 4:11상)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2. 우리는 땅에 속한 모든 재물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 시 119:72, 9-16, 엡 3:8, 고후 6:10, 벰전 4:10-11.

(시 119:72)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은 제게 / 금과 은 수천 냥보다 낫습니다.

(시 119:9-16)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순수하게 지키겠습니까? /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는 길뿐입니다. ¹⁰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 주님의 계명들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¹¹저는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¹²오, 여호와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 제게 주님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¹³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규례들을 / 제 입으로 선포하며 ¹⁴모든 재물을 기뻐하듯 /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기뻐하였습니다. ¹⁵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¹⁶주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렵니다.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고후 6:10)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벰전 4:10-11)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¹¹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II. 베드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심을 보았다 — 벰전 2:7, 비교 빌 3:8.

(벰전 2: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

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A.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께 책망을 받고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자이신 주님을 계속 따를 정도로 주님께 매혹되었다(매료되고 사로잡혔다) — 눅 5:8-11, 막 14:67-72, 16:7, 요 21:15-22, 벨후 1:14-15.

(눅 5:8-11)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⁹이것은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¹⁰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들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댄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막 14:67-72) 불을 쪼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피더니 “그대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라고 하자, ⁶⁸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리고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⁶⁹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며 다시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입니다!”라고 하니, ⁷⁰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대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대는 그들과 한패요!”라고 하니, ⁷¹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라고 하였다. ⁷²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대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

(막 16:7) 여러분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요 21:15-22)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⁸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¹⁹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²⁰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여쭙던 사람이었다. ²¹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²²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 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벨후 1:14-15)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 주신 대로,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¹⁵나는 더욱 힘써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베드로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변형되실 때에 그 안으로 온전히 이끌려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으며, 그분의 위엄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벨후 1:16-18, 비교 벨전 5:1.

(벨후 1:16-18)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 주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써 한 것입니다. ¹⁷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¹⁸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벤전 5: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2.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위엄 있으신 분’(사 33:21)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심판자와 율법 제정자와 왕(사 33:22)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주(벤험 1:1)와 모든 것의 주님(벤전 3:22, 행 2:36)이신데, 이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계 22:1).

(사 33:21) 그러나 거기서 위엄 있으신 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 강과 넓은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어 주시리니 / 노 젓는 배가 그 위로 다니지 못하고 / 웅장한 배도 지나지 못하리라.

(사 33:22) 여호와와 우리의 심판자 / 여호와와 우리의 율법 제정자 /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벤험 1: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벤전 3:22)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행 2: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B.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 벤전 2:4, 6-8.

(벤전 2: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벤전 2:6-8)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⁷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⁸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C.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우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했다 — 벤전 1:14, 18-19.

(벤전 1:14) 순종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전에 무지하였을 때 따르던 욕망을 본받아 살지 말고,

(벤전 1:18-19)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¹⁹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D.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 벤험 1:1, 4, 비교 사 42:6, 히 8:8-12.

(벤험 1: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벤험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 42:6)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의로 불러내 / 네 손을 잡아 주며 / 너를 지켜 주어 / 너를 백성을 위한 언약으로, 민족들을 위한 빛으로 줌은

(히 8:8-1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흠을 발견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⁹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주의 말이다. ¹⁰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¹¹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¹²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주님의 보배로운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잔이신 그분을 마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모든 약속들의 실재이신 그분을 누린다 — 행 4:10-12, 시 116:12-13.

(행 4:10-12)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¹¹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셨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습니다. ¹²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 116:12-13)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혜택에 / 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¹³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2.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신성한 본성을 누린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이자 라고 발전하여 생명의 성숙에 이름으로써,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누릴 것이다 — 벧후 1:4-11.

(벧후 1:4-11)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⁵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⁶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⁷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⁸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⁹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¹⁰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질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¹¹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 E.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해 주셨다 — 벧후 1:1, 롬 12:3.

(벧후 1: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롬 12: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 F.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증명된다 — 벧전 1:6-7.

(벧전 1:6-7)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⁷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Ⅲ. 이사야는 낙심해 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 사 6:1-8, 비교 5:20, 22:1, 대하 26:1-5.

(사 6:1-8) 웃시아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 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²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³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⁴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⁵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यो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음이라!” ⁶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⁷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⁸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사 5:20)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 22:1) 이상의 골짜기에 대한 부담이다. / 무슨 일이기에 / 모두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대하 26:1-5) 유다 온 백성은 십육 세인 웃시아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는 왕으로 삼았다. ²아마샤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웃시아는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로 되돌려 놓았다. ³웃시아는 십육 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인데,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⁴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⁵하나님의 이상을 이해하는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웃시아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

A. “악을 선이라 하고 /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 어둠을 빛에 두고 /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 쓴 것을 단것에 두고 /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악한 상황을 볼 수 있다 — 사 5:20.

B.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과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자 왕이시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 사 6:1-5, 애 5:19, 계 22:1.

(사 6:1-5) 웃시아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²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³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⁴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⁵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यो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음이라!”

(애 5:19)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C. 이사야가 본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 사 6:5하, 요 12:38-41.

(사 6:5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음이라!”

(요 12:38-41)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라고 한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³⁹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다. ⁴⁰“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

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⁴¹ 이러한 말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1. 요한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을 설명하면서,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 요 12:41.
2.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사 6:9-10)에 주의를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멀과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요 12:40, 마 13:14-17, 행 28:25-27, 계 3:18, 4:2, 고후 3:16-18).

(사 6:9-10)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 ‘잘 들어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 잘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¹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 귀를 어둡게 하며 / 눈을 감기게 하여라. /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 마음으로 알고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요 12: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마 13:14-17) 또한 이사야의 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¹⁵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니 복이 있고, 여러분의 귀는 듣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¹⁷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신언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보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못 들었습니다.

(행 28:25-27) 그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떠나려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신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²⁶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²⁷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계 3: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계 4:2)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고후 3:16-18)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¹⁷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¹⁸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D. 그리스도의 긴 옷은 주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그분의 미덕의 광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긴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사람으로서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신다 — 사 6:1, 비교 겔 1:26, 22, 행 2:36, 히 2:9상.

(사 6:1) 옷시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행 2: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 2:9상)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E. 이사야는 의에 근거한 거룩함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 사 6:2-3.

(사 6:2-3)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³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1. 스랍들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대표한다. 스랍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해 그곳에 있었다.

2.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그분의 의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의로우시므로, 속된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되시고 구별되셨다 — 사 5:16.

(사 5:16)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와 심판으로 높아지시며 /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F.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으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 사 6:5.

(사 6:5) 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고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보았음이라!”

1.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 비교 창 13:14-15, 갈 3:14, 마 5:8.

(창 13:14-15)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¹⁵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갈 3: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낡은 요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다 — 고후 3:16-4:1, 롬 12:2, 빌 3:8.

(고후 3:16-4:1)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¹⁷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¹⁸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4:1}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3.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자신을 더 혐오하고 더 부인하게 된다 — 욥 42:5-6, 마 16:24, 눅 9:23, 14:26.

(욥 42:5-6)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눅 14: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G.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가져온 타고 있는 숯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1.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타고 있는 이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댄 것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이 심판하고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영, 거룩하신 분’에 의해 적용되는 것을 상징한다 — 사 6:6-7, 4:4, 비교 눅 12:49, 계 4:5.

(사 6:6-7)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⁷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사 4:4) 그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영과 불태우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고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없애실 것이다.

(눅 12:49)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2. 하나님을 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로 이끄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적셔지며, 그분의 의 안에서 살게 된다 — 사 6:6-8, 요일 1:7-9, 행 13:47, 빌 1:21상.

(사 6:6-8)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⁷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⁸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요일 1:7-9)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⁸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⁹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 13:47)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IV. 지극히 보배로운 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 단 10:4-9.

(단 10:4-9) 첫째 달 스무나흘날에 나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⁵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⁶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넉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⁷나 다니엘만 홀로 그 이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큰 공포에 휩싸인 채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⁸그래서 나 홀로 남아 그 큰 이상을 보았다. 내 안에는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았고, 내 얼굴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힘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⁹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소리를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A. 그리스도는 포로 되어 있는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겹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셨다 — 단 10:5상, 출 28:31-35.

(단 10:5상)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출 28:31-35)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겹옷을 전부 청색 실로 만들어라. ³²그 겹옷의 가운데에는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구멍처럼 잘 휘감쳐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³³그 겹옷의 옷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³⁴그 겹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를 달아라. ³⁵아론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겹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B.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 — 단 10:5하.

(단 10:5하)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C.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도록,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된,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 ‘녹주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 빛의 보석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요(황색) 생명으로 충만하시며(녹색) 하늘에 속하심(청색)을 상징한다 — 단 10:6상.

(단 10:6상)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D. 그리스도는 또한 번개의 모습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시고 나타나셨으며(단 10:6), 횃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6절).

(단 10: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넉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E. 그리스도는 광넉이 빛나는 것 같은 팔과 발로 상징된, 빛나는 일과 움직임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 단 10:6.

(단 10: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넉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F. 그리스도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된,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 — 단 10:6.

(단 10: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넉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1. 세계정세 전체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단 2:34-35, 7:9-10, 4:34-35, 골 1:15, 18, 계 2:4-5.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갈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단 7:9-10) 내가 살펴보니 / 보좌들이 놓이고 /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으셨는데 / 그분 옷은 흰 눈 같고 / 그분 머리털은 순전한 양털 같았으며 / 그분 보좌는 불꽃이었고 / 그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었다. ¹⁰불 시내가 흘러 / 그분 앞에서 나오고 / 그분을 섬기는 이가 천천이며 / 그분 앞에 선 이가 만만이었다. / 심판의 법정이 열리고 / 책들이 펴졌다.

(단 4:34-35) “그날들이 왔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³⁵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 그분의 손을 막거나 /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골 1: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서 반드시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얻으셔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이로서 우리의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한다 — 골 1:17상, 18하, 3:17, 고전 10:31.

(골 1:17상)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 3: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3. 하나님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환경을 사용하시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심(첫째)과 전부(모든 것)이 되게 하신다 — 롬 8:28, 골 1:18, 27, 3:4, 10-11.

(롬 8: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4.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이러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게 해 드린다 — 단 4:26하, 35, 골 1:18, 3:4, 10-11, 시 27:4.
- (단 4:26하)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 (단 4:35)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 그분의 손을 막거나 /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 (골 1: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V.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구성되어 하나님 자신께 개인적인 보물이 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보배로운 임재 안에서 살며,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시는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집과 왕들인 거룩한 제사장 체계로 만드시어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신다 — 벰전 3:4, 단 9:23, 10:11, 19, 고후 2:10, 시 16:5, 출 19:4-6, 벰전 2:1-9, 벰후 3:8, 11-12.

- (벰전 3: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 (단 9: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운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 (단 10:11)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 (단 10: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 (시 16:5) 여호와와 저의 유업과 잔의 몫이시니 / 주님께서 저의 소득을 지켜 주십니다.
- (출 19:4-6)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⁵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⁶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 줄 말이다.”
- (벰전 2:1-9)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²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³여러분이 주

남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⁴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⁵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⁶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⁷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⁸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⁹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벧후 3:8)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과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벧후 3:11-12)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¹²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성경: 요 21:15-17, 10:9-17, 벤전 5:2, 4, 2:25, 히 13:20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요 10:9-17)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¹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¹¹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¹² 삷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 가고 흩어지게 합니다.¹³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삷꾼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¹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¹⁵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¹⁶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¹⁷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벤전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벤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벤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I.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이다. 목양하는 것은 양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 요 21:15-17, 행 20:28.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II. 목양의 두 가지 기본 요소는 보살피는 것과 보양하는 것이다 — 엡 5:29.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 A. 목양하는 것은 위로하고, 달래 주고, 다정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다정한 돌봄으로 길러 주는 것이다.
- B.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을 보살핌으로 기쁘게 해 주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들을 보양해야 한다.

Ⅲ.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 요 21:16, 벰전 5:2, 4.

(요 21: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벰전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동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 A.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은 목양에 있다.
- B.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에 의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의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고 자라게 하신다 — 벰전 1:3, 요 10:11, 계 7:17.
(벰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공훈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계 7:17)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C.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도록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엡 4:13-16.

(엡 4:13-16)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⁴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¹⁵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¹⁶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D.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 고전 12:23-26.

(고전 12:23-26)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²⁴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²⁵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²⁶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 1. 영적 성장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목양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결함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목양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 요 10:11, 16, 히 13:20-21, 벧전 5:4, 2:25.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0: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히 13:20-21)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²¹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벧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벧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3. 우리는 양들이н 동시에 목자들로서 상호성 안에서 목양하고 목양받고 있다. 이러한 목양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 히 5:14, 엡 4:12-13.

(히 5: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엡 4:12-13)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¹³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E. 그리스도로 조성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이들을 돌볼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 골 1:27, 3:10-11, 14.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거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목양하는 방면이 있으시다 — 요 21:15-17.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¹⁶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2. 목양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목양하라고 장려하는 것에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다.

3. 목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조성된 결과이다 — 골 3:4, 10-11.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4. 우리 존재에서 그리스도로 조성된 부분이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부분이다.

5. 우리는 누구도 목양할 수 없다. 우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자이시다 — 요 10:11, 벰전 2:25, 5:2, 4, 히 13:20.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벰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벰전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F.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찾고 목양하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해야 한다 — 눅 15:1-32.

(눅 15:1-32)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다가오자, ²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대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라고 하니, 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⁴“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⁵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⁶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⁷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⁸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열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쏘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⁹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¹⁰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¹¹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¹²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¹³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작은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¹⁴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¹⁵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¹⁶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¹⁷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¹⁸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¹⁹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 ²⁰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²¹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²²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²³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²⁴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²⁵한편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²⁶그래서 그가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²⁷종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²⁹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대꾸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노예처럼 일해 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런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³¹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³²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1.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목양해야 한다 — 고전 13:1-13.

(고전 13:1-13)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²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³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⁴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⁵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⁶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⁷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⁸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⁹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신언하지만, ¹⁰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¹¹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¹²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¹³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2. 사랑은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

(고전 12:31하)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a.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다 — 딤후 1:7.

(딤후 1: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b.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거듭나 그분의 종(種)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 사랑이다 — 요일 4:8, 요 3:6.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3.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 엡 4:16.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IV.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우리 혼의 목자이시다 — 요 10:9-17, 히 13:20-21, 벤전 5:4, 2:25.

(요 10:9-17)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¹⁰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¹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¹²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 가고 홀어지게 합니다. ¹³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¹⁴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¹⁵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¹⁶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¹⁷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히 13:20-21)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²¹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벧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벧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A.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0-11.

(요 10:10-1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¹¹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1.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생명, 곧 인간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조에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0:11, 15, 17.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0: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요 10: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2. 그분은 그분의 양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어, 먹이는 장소인 풀밭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분을 자유롭게 먹고 그분에게서 보양을 받을 수 있다 — 요 10:9.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며, 또 풀밭을 발견할 것입니다.

3. 주님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그분의 목양을 받는 한 양 떼(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형성하셨다 — 요 10:16.

(요 10:16)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입니다.

B.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 히 13:20.

(히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1. 영원한 언약은 목양에 의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겠다는 것이다.

2.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고자 하는 새 유언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 C.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신다 — 벰전 5:4.
(벰전 5:4)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1.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2. 장로들의 목양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목양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 D. 우리 혼의 목자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 벰전 2:25.

(벰전 2: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1. 그분은 우리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2.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는 것,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필요와 상처를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V.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 — 벰전 5:2.

- A. ‘하나님을 따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 살전 3:8, 5:10.

(살전 3:8)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선다면, 이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살전 5:10)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 B.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 롬 11:24.

(롬 11:24) 그대가 원래의 야생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 C.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과 기질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D.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엡 4:18, 요일 4:8, 계 15:3.

(엡 4: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계 15:3)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 E.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1. 우리는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져서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 — 요 4:14, 골 3:4.

(요 4: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골 3: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2.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방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됨으로써,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기질과 특이함을 지닌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4. 우리는 기능 방면에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따라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해야 한다.

F.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 요 14:20, 고전 6:17.
(요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1.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 요 15:4, 고전 6:17.

(요 15: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2.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이 함께 합해져 한 생명이 되고 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신다 — 요 6:57, 갈 2:20.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G.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 엡 3:17상, 골 3:10–11.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어 그분의 존재와 한 조성체가 되기를 갈망하신다 — 엡 3:17상, 골 3:10–11.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2. 신성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시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

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하신다 — 고후 13:14.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H.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 — 빌 1:21상.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1.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요 11:25, 6:48, 57.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6:48)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 — 갈 2:20.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I.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1. 여호와와 모세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그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뜻을 집행할 한 사람을 얻으셨다 — 출 7:1, 3:16–18, 5:1.

(출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신언자가 될 것이다.

(출 3:16–18)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찾아왔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보았다. 17 내가 말하건대 나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를 이끌어 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할 길을 나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출 5: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2.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 삼상 1:11, 2:35, 7:3, 8:22.

(삼상 1: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삼상 2: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삼상 7: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 두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삼상 8:22)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각자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a. 사무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었다 — 삼상 2:35.

(삼상 2: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b. 사무엘의 생활과 일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3. 하나님의 사람인 신언자 엘리사는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곧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행동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 — 왕하 4:9, 딤후 6:11.

(왕하 4:9)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딤후 6: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J.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 고후 13:14.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 실재화되신다. 이분이 우리가 경배하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다 — 골 2:9, 고전 15:45하, 고후 1:3-4, 12, 15-16, 2:10, 13:14.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후 1: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⁴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후 1: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1:15-16)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¹⁶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다음,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전송을 받으며 유대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은혜와 진리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 존재 안에 일해 놓여지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해야 한다 — 엡 3:16-17상, 4:25, 29, 요 6:63.

- (엡 3:16-17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엡 4: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 버렸으니,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 (엡 4: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통 —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제

성경: 요일 1:1-2:2

(요일 1:1-2: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²(이 생명이 나타났습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⁴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⁵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⁶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⁷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⁸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⁹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¹⁰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²¹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²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I. 요한의 서신서들(특별히 요한일서)은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라는 비밀을 밝혀 준다 — 요일 1:3-4, 6-7.

(요일 1:3-4)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⁴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일 1:6-7)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⁷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A.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수의 흐름으로 묘사된 것처럼, 교통은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곧 실질적인 교회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흐름이며, 이렇게 흐르시는 분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으뜸의 위치를 얻으셔야 한다 — 요일 1:2-4, 계 22:1, 골 1:18하, 비교 겔 47:1.

(요일 1:2-4) (이 생명이 나타났습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⁴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수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겔 47:1)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 갔다.

B. 교통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아들은 생명의 샘이시며, 그

영은 생명의 강이다. 이러한 흐름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된다 — 요 4:14하, 계 22:1-2.

(요 4:14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C. 교통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으로 그들의 유일한 몫과 복으로 나누어 주어 믿는 이들이 오늘과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 고전 1:9, 고후 13:14, 민 6:22-27.

(고전 1: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민 6:22-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³“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²⁴“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²⁵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²⁶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²⁷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D. 교통은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 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 행 2:42, 요일 1:3.

(행 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E. 교통은 가르침에서 온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친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분파적이고 분열적인 교통을 산출할 것이다 — 행 2:42, 딤후전 1:3-6, 6:3-4, 고후 3:8-9, 5:18.

(행 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딤후전 1:3-6)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⁵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⁶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빛나감으로써 헛된 이야기에 빠져

(딤후전 6:3-4)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⁴그는 교만으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말소에 관하여 질문이나 던지고 말다툼이나 하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나오며,

(고후 3:8-9)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⁹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고후 5: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 F. 요한일서는 신성한 교통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요한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과 어떤 교통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며(7-11절), 요한삼서는 복음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여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전송하고, 교회 안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5-10절).

(요이 7-11)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혹시키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⁸여러분은 자신을 지켜서, 우리가 일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⁹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¹⁰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지니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¹¹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삼 5-10)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들, 특별히 나그네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신실한 것입니다. ⁶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전송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⁷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⁸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 진리에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⁹내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¹⁰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여 헐뜯고,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II. 영원한 생명의 교통은 그 영의 하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재이다 —

고전 10:16-18, 행 2:42, 엡 4:3.

(고전 10:16-18)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¹⁷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¹⁸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행 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엡 4: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 A. 우리는 신성한 영이신 성령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간다. 이 방면의 교통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삼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 고후 13:14, 요일 1:3, 6, 막 12:30.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1:6)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B.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간다. 이 방면의 교통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 빌 2:1, 계 1:10, 요일 1:2-3, 7, 고전 16:18, 막 12:31, 롬 13:8-10, 갈 5:13-15.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계 1:10)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일 1:2-3)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고전 16:18) 그들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막 12:31) 둘째가는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롬 13:8-10)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⁹“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¹⁰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갈 5:13-15) 형제님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¹⁴왜냐하면 온 율법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¹⁵여러분이 서로 물고 삼킨다면 양쪽 다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C. 하나의 신성한 교통은 짜인 교통이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교통이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인 것이다.

1. 사도들은 먼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수직적인 교통을 체험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했다 — 요일 1:2-3, 비교 행 2:42.

(요일 1:2-3)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행 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2.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준다. 그런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 함께하는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준다.

3.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을 둘 다 유지해야 한다 — 비교 요일 1:7, 9.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1: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D.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다.

1. 교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신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임하신다 — 고후 13:14, 계 22:1.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짜이신다. 이렇게 짜이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서, 신성한 조성 성분을 우리의 영적인 존재 안으로 가져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게 한다 — 레 2:4-5.

(레 2:4-5) 네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바쳐야 한다. ⁵네가 바치는 제물이 철판에 구운 소제물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안 든 것이어야 한다.

3.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섞고, 고르게 하고, 조절하고, 조화시키고, 함께 연합시켜 한 몸이 되게 한다 — 고전 10:16-18, 12:24-25.

(고전 10:16-18)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¹⁷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¹⁸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고전 12:24-25)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²⁵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III. 신성한 교통의 누림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성에 내주하는 죄에 대한 속죄제물과 우리의 행실 가운데 있는 죄악된 행동들에 대한 속건제물로 취해야 한다 — 요일 1:8-9, 3:20-21, 레 4:3, 5:6, 요 1:29, 롬 8:3, 고후 5:21, 벰전 2:24-25.

(요일 1:8-9)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⁹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일 3:20-21)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²¹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레 4:3) 만일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까지 죄가 돌아가게 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소 떼 가운데서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여호와에게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레 5:6)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작은 가축 떼 가운데서 암컷 곧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고후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벧전 2:24-25)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²⁵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A. 죄는 사탄의 악한 본성이다. 사탄은 아담의 타락을 통하여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함으로 이제 사람 안에서 불법의 죄악된 본성이 되었다. 이러한 본성은 타락한 사람 안에 하나의 법으로서 거하고 활동하며 작용하고 있다 — 롬 5:12, 19상, 21상, 6:14, 7:11, 14, 17-23, 시 51:5, 요일 3:4, 비교 살후 2:3, 7-8.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롬 5:19상)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같이,

(롬 5:21상)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롬 6: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롬 7:11)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롬 7: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롬 7:17-23)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¹⁸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¹⁹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²⁰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²¹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²²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²³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 51:5) 보십시오,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 어머니는 저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요일 3:4)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마다 불법을 일삼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살후 2:3)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2:7-8)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⁸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B.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롬 6:6),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유죄판결 받으며(롬 8:3), 죄 자체인 사탄이 멸망되고(히 2:14), 세상이 심판받으며,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것(요 12:31)을 의미한다.

(롬 6: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

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요 12: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1. ‘이 세상의 통치자’에서 ‘통치자’라는 단어는 권위나 권력 그리고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을 함
축한다 — 눅 4:5-8, 비교 마 20:20-21, 24, 요삼 9.

(눅 4:5-8)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 주
며, ⁶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겨
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소. ⁷그러므로 그대가 내 앞에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오.” ⁸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20-21)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²¹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
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마 20: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자.

(요삼 9) 내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은 육체, 죄, 사탄, 세상, 세상의 통치자에게서 나온 결과 혹은 산물
이다 — 갈 5:16-17, 24-26.

(갈 5:16-17)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¹⁷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
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 5:24-26)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²⁵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²⁶헛된 영광을 구하려
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3.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능력과 힘과 에너지이다.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우리가 누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며,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한다 — 롬 7:23, 8:2, 레 6:24-30, 비교 7:1-10.

(롬 7:23)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
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레 6:24-3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⁵“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속죄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²⁶죄 때문에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거룩
한 곳, 곧 회막의 뜰에서 먹어야 한다. ²⁷무엇이든 그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피가
의복에 튀었을 때에는 피가 튄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²⁸그 제물을 삶은 질그릇은 깨뜨
려야 한다. 만일 그 제물을 놋그릇에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²⁹제
사장 가족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³⁰그러나 성
소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회막 안으로 피 얼마를 가져간 경우, 그 속죄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레 7:1-10) ‘속건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²속건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³그 제물의 기
름 덩이는 모두 바쳐야 하는데,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 덩이, ⁴두 콩팥과 거기에 붙
은 허리 부분의 기름 덩이,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이다. ⁵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에게 화제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물이다. ⁶제사장 가족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⁷속죄제물과 속죄제물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곧, 속죄하여 주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는다. ⁸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맡아서 바쳤다면, 그 제사장은 자기가 바친 번제물의 가족을 갖는다. ⁹화덕에 구운 모든 소제물과 술이나 철판에 익힌 모든 소제물은 그것을 바친 제사장의 것이다. ¹⁰다른 모든 소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C.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곧 다른 이들의 죄들을 짊어지는 생명으로 누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할 때, 우리는 죄를 처리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의 문제들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의 하나 안에 지켜지게 할 수 있다 — 요일 5:16, 레 10:17.

(요일 5: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레 10:17) “너희는 왜 그 속죄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가 회중의 죄악을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도록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D.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요일 1:5, 골 1:12)과 참되고 친밀하며 살아 있고 사랑스러운 교통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이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취할 것이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누릴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욱 알게 된다 — 사 6:5, 눅 5:8, 롬 7:18.

(사 6:5) 그때 내가 말하였다. /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보았음이라!”

(눅 5: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롬 7:18)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취할 때, 우리는 심판받고 굴복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보존해 주는데, 이는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 빌 3:3, 비교 출 4:6.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 4:6)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3.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되다. 죄는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 창 1:26, 사 43:7, 롬 3:23.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

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a.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죄이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도 죄이다 — 민 28:2, 왕하 5:20-27, 마 7:22-23, 고후 4:5.

(민 28: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왕하 5:20-27)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시중드는 게하시가 속으로 말하였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지고 와서 손수 바치는 것을 주인님이 마다하고 받지 않으셨구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 그에게서 무엇이든 좀 받아야겠다.’²¹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자신을 뒤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무슨 일이시요?”²² 게하시가 말하였다. “별일 아닙니다. 다만 나의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신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나에게 왔습니다. 부디 저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여벌 옷 두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²³ 그러자 나아만이 말하였다. “부디 두 달란트를 받아 주시오.”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강권하고는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나누어 담고 여벌 옷 두 벌과 함께 시중드는 두 사람에게 주니, 그들이 그것들을 메고 게하시보다 앞서갔다.²⁴ 게하시는 언덕에 이르러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다가 집 안에 들여놓았다. 그러고는 그들을 돌려보내 그들이 떠났다.²⁵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게하시, 자네는 어디를 다녀오는 길인가?” 게하시가 말하였다. “이 종은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니다.”²⁶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자네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은 자네와 함께 그곳에 가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이 은을 받고 옷과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인가?”²⁷ 그러니 나아만의 나병이 자네와 자네의 씨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자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 앞에서 물러갔다.

(마 7:22-23)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²³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b.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은 죄이다 — 마 6:1-6.

(마 6:1-6)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²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³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⁴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⁵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⁶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c. 우리 자신(우리의 명성과 지위와 유익과 자랑)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죄이

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장래를 위해 자녀를 기르는 것도 죄이다 — 눅 14:12-14, 비교 고전 7:14.

(눅 14:12-14)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리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보답할지도 모릅니다. ¹³그대가 잔치를 베풀거든,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팔다리 못 쓰는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¹⁴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대가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대가 그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7:14)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4. 주님은 우리의 실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지를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다 — 시 51편, 눅 22:31-32, 롬 8:28.

(시 51편)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잘못을 지워 주십시오. ²저의 죄악에서 저를 철저히 씻겨 주시고 /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³저는 저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 저의 죄가 줄곧 제 앞에 있습니다. ⁴저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러하였기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며 / 판단하실 때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⁵보십시오,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 어머니는 저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⁶보십시오, 주님은 속부분의 진실성을 기뻐하시며 / 제 숨겨진 부분에 지혜를 알려 주십니다. ⁷우솔초로 저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⁸제게 즐거움과 기쁨에 찬 소리를 들려주시어 /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⁹저의 죄들에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 저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¹⁰오,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 제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¹¹주님의 임재에서 저를 쫓아 내지 마시며 /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¹²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해 주시고 / 자원하는 영을 주시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¹³저는 범법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렵니다. /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¹⁴오, 하나님! 오, 제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리게 한 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 그리하시면 제 혀가 주님의 의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¹⁵오,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 그리하시면 제 입이 주님의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 ¹⁶주님은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 그러지 않으셨다면 제가 드렸을 것입니다. / 주님은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¹⁷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 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¹⁸주님의 선한 기쁨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며 /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주십시오. ¹⁹그때에는 주님께서 의의 희생 제물과 /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 그들이 향소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눅 22:31-32) 시몬이여, 시몬이여,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여러분을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³²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두고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대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롬 8: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 E. 그리스도를 속건제물의 실재로 취하는 것은 생명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생명 공급으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속하시는 분, 빛 비추시는 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 요일 1:1-2:2, 계 21:21, 23, 22:1-2.

(요일 1:1-2: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²(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⁴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⁵우리가 그분께 들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⁶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⁷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⁸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⁹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¹⁰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²¹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²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계 21:21)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1.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할 때, 우리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들과 불순함을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 — 행 24:16, 딤후 1:5, 19, 3:9, 딤후 1:3, 히 9:14, 10:22.

(행 24: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딤후 1: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딤후 1: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

(딤후 3:9)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딤후 1:3)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2.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구속에 대하여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형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로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단된 교통을 회복하시어, 우리를 신성한 교통의 누림 안에 거하게 하신다 — 요일 1:7, 9, 2:1-2.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

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1: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일 2:1-2)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²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3.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문제, 우리의 양심에 죄책감이 있는 문제,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 시 103:1-4, 12-13, 32:1-2, 계 12:10-11.

(시 103:1-4)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²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 그분께 받은 모든 혜택을 잊지 마라. ³그분께서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 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⁴네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 자애와 자비로 관 씌우시며

(시 103:12-13) 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 /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¹³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시 32:1-2) 잘못들을 용서받고 /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네. ²여호와께서 죄악을 묻지 않으시는 사람, / 영 안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 복이 있다네.

(계 12:10-11)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¹¹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4. 신성한 빛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하는 것은 우리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길이다 — 요 4:14-18.

(요 4:14-18)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¹⁵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시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¹⁶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¹⁷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¹⁸그대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5.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시 130:4, 눅 7:47-50.

(시 130:4) 그러나 용서가 주님께 있으니 / 이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눅 7:47-50)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⁴⁸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시자, ⁴⁹함께 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해 주는가?’ ⁵⁰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IV.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빛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라는 네 가지 핵심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영적 생명의 순환을 계속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계속 전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도달함으로써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단체적으로 이르게 된다 — 요일 1:1-9, 히 6:1, 엡 4:13.

(요일 1:1-9)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²(이 생명이 나타났습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⁴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⁵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⁶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⁷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⁸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⁹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엡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되신 분

성경: 요일 5:6, 11-13, 20, 1:1-3, 3:24, 4:2, 6

-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 (요일 5:11-13)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¹³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요일 5: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 (요일 1:1-3)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²(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 (요일 3: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 (요일 4:2)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I.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요한일서 전체의 중요한 결론이 있다.

- (요일 5: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 A. 이 서신서는 이제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되신 분, 실재이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요일 1:3, 3:24, 4:2.
-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 (요일 3: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 (요일 4:2)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 B.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실재와 생명이 되신다 — 요일 5:6, 2:24-25, 4:13.
-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 (요일 2:24-25)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²⁵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일 4: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II.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삼일 하나님을 알게 된다 — 요일 1:5, 2:27, 4:16, 5:11-12.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시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A. 서신서들을 쓴 사도 요한의 관심은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었다 — 요이 8.

(요이 8) 여러분은 자신을 지켜서, 우리가 일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B. 삼일 하나님은 단지 우리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 요일 4:13-15.

(요일 4:13-15)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¹⁴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¹⁵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C. 우리는 주관적인 하나님을 내적으로 누림으로써 삼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요일 2:27, 4:4.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요일 4:4)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D.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노선과 생명의 성장의 과정 안에 있어야 한다.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III. 요한의 서신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계시한다 — 요일 1:1-2, 2:23-24, 3:24, 4:2, 6, 13-14, 5:6, 11-12, 요이 9.

(요일 1:1-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²(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일 2:23-24)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²⁴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일 3: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요일 4:2)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요일 4:13-14)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¹⁴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일 9)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빛나가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A.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근원, 유일한 창시자,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창시하시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그분에게서 나온다 — 요일 1:2-3, 2:23-24, 4:2, 6, 13-14, 요이 9.

(요일 1:2-3)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2:23-24)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또한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 또한 있습니다. ²⁴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일 4:2)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요일 4:13-14)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¹⁴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요일 9)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빛나가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며,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1.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나셨다 — 요일 1:2-3, 5:11-12.

(요일 1:2-3)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³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2. '아버지'라는 칭호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 요일 3:1, 벤전 1:3.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벤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B.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은 모두 영원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시간 안에서 육체 되심을 통해 나타나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인격을 의미한다 — 요 1:1, 14.

(요일 1:1-2)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²(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로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시다 — 요일 2:13상, 14상.

(요일 2:13상)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일 2:14상)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들, 즉 죄악된 행위들을 허무시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3:8하.

(요일 3:8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셨다 — 요일 4:10.

(요일 4:10) 사랑은 이렇게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4.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 요일 4:9.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단이시다 — 요일 5:11-12.

(요일 5:11-12)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6.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변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께서 성취하신 화해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변호하심으로써, 우리의 사건을 돌보아 주신다 — 요일 2:1, 롬 8:34.

(요일 2:1)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롬 8: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C.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은 성령 곧 실재의 영이시다 — 요 14:17, 15:26, 16:13.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요 14: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15: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요 16: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그 영은 실재이시다.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온 존재의 실재이심을 의미한다 — 요일 5:6.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안다 — 요일 3:24.

(요일 3: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D. 요한일서 4장 13절과 1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제시한다.

(요일 4:13-14)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¹⁴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분의 영에게서 나온 것’(원문 직역)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께서 차고 넘치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차고 넘치시어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 빌 1:19, 요 3:34.

(요일 4: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 3:3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을 주셨으며, 이 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시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E. 우리는 참되신 분을 알고 참되신 분 안에 있다 — 요일 5:20.

(요일 5:20)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IV.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 요일 5:20.

A. “우리는 … 압니다.”

1. ‘우리’는 먼저 가르침과 교통을 가져오는 사도들을 가리키고, 그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 요일 1:3, 6-7.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일 1:6-7)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⁷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2. ‘압니다’는 신성한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식을 가리킨다 — 요일 3:2, 5.

(요일 3: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3:5)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B.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영으로서 오셔서 은혜와 실재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고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하신 것을 가리킨다 — 요 1:14, 엡 2:17, 요일 1:5, 4:16.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엡 2: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C. ‘이해력’은 실재의 영으로 말미암아 빛 비춤을 받고 강화된 생각의 기능으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신성한 실재를 깨닫는 것이다 — 요 16:12-15.

(요 16:12-15)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¹³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⁴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⁵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D. ‘참되신 분을 알게’ 혹은 ‘그 참되신 분을 알게’.

1. ‘참되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알레티노스)는 ‘진실된’, ‘실재인’을 의미하며, ‘거짓된’, ‘허위인’과 반대된다.
 - a. 사실상 ‘참되신 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참됨’이다.
 - b. 오직 우리의 삼일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 밖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거짓이다.
2. (주관적인 용어인) ‘참되신 분’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신 것을 가리킨다.
3. 이 절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체험에서 참되신 분이 되신다.
 - a. 참되신 분은 신성한 실재이시고, 우리는 이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참되신 분을 알고 신성한 실재를 안다.
 - b.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참되신 하나님 곧 신성한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게 하신다.
 - c. 이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실재가 되신 것을 가리킨다.
 - d.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이셨지만,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실재가 되셨다.

E. “우리는 그 참되신 분 … 안에 있습니다.”

1. 우리는 참됨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 a. 우리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다.
 - b.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이다.
3. 우리는 더 이상 참됨 밖에 있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다.
4. 요한이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성한 실재이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실재 안에 곧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중대한 요점을 밝혀 주고 있었다.

F. “우리는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에(골 2:9),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3.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참되신 분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하든, 그 결과는 동일하며 그 의미도 사실상 동일하다.
 - a. 참되신 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호 내재의 방식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 b.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참되신 분 안에 있다.

G.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1. 우리는 ‘이분’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요한은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둘 다를 가리키기 위해 ‘이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리적으로는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두 분은 하나이다.
 4. 이러한 이유로 요한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이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5.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 H. 우리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요일 5: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1. ‘이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체험적인 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2. 우리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두 분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신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며,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말한다.
 3. ‘이분’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4.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제 우리의 체험에서 이 참되신 분은 참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6. ‘이분’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7. 우리는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8. 우리가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 I. 참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의 체험이 되신다 — 요일 5:20, 1:2, 2:25, 5:11, 13, 요 3:15-16, 36, 4:14, 5:24.
(요일 5: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요일 2:25)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일 5:11)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

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3:15-16)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¹⁶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 4: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 이것이 요한일서의 기본 요인이다.
2.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갖는다.
3.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